

Session 8 Jesus' Ministry in Galilee (Mk. 1-2; Lk. 4-5)

제 8 강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마 1-2 장; 눅 4-5 장)

I. JESUS IN GALILEE: HEADQUARTERS IN CAPERNAUM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가버나움을 본거지로

- A. In this session, we look at Jesus' ministry in the Galilee region that lasted about 18 months (from the autumn AD 27 to spring AD 29). Luke gave an overview of Jesus' ministry (4:14-5:11) and how He interacted with His opponents (5:12-6:11) and His disciples (6:12-49).

이 강에서는 약 18 달 동안 계속되었던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AD 27 년 가을 ~ AD 29 년 봄까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개괄적으로 언급한 후 (4:14-5:11), 그분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과 (5:12-6:11)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6:12-49) 설명한다.

- B. Jesus was initially received very well in the synagogues in Galilee, especially after the people heard of the many miracles that He had done recently while in Jerusalem (Jn. 4:45).

예수님은 초기에 갈릴리의 회당에서 잘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특별히 사람들이 최근에 그분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에 대해 들은 이후에 그랬다 (요 4:45).

¹⁴ *Jesus returned in the power of the Spirit to Galilee, and news of Him went out through all the surrounding region.* ¹⁵ *And He taught in their synagogues, being glorified by all. (Lk. 4:14-15)*

¹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¹⁵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눅 4:14-15)

⁴⁵ *So when He came to Galilee, the Galileans received Him, having seen all the things He did in Jerusalem at the feast; for they also had gone to the feast. (Jn. 4:45)*

⁴⁵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 (요 4:45)

- C. Jesus healed a royal official's son (Jn. 4:46-54). The nobleman was mistaken in thinking that Jesus needed to leave Cana to travel the 15 miles to Capernaum to heal his son. If the nobleman believed that Jesus was God, then He could have spoken the word and healed him. It was 1 pm (the seventh hour), so if he had left right away, he could have been home at 6 pm that night.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 (요 4:46-54). 이 귀족은 예수님이 가나에서 15 마일 (24km)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아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셔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만일 이 귀족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면, 그분이 말씀을 하심으로 그 아들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때는 오후 1 시였기에 (일곱 시), 만일 그가 즉시 떠났다면 그날 밤 6 시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역자주: 이 귀족은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갔다).

⁴⁶ *So Jesus came again to Cana of Galilee...And there was a certain nobleman whose son was sick at Capernaum...⁴⁷he...implored Him to come down and heal his son, for he was at the point of death.* ⁴⁸ *Then Jesus said to him, "Unless you people see signs...you will by no means believe."* ⁴⁹ *The nobleman said to Him, "Sir, come down before my child dies!"* ⁵⁰ *Jesus said to him, "Go your way; your son lives."* *So the man believed the word that Jesus spoke to him....* ⁵¹ *And as he was now going down, his servants met him and told him, saying, "Your son lives!..."* ⁵² *Yesterday at the seventh hour [1pm] the fever left him.* ⁵³ *So the*

father knew that it was at the same hour in which Jesus said to him, "Your son lives." And he himself believed, and his whole household.

(Jn. 4:46-53)

⁴⁶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⁴⁷ ...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⁴⁸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⁴⁹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⁵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⁵¹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⁵²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어제 일곱 시[오후 1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⁵³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 4:46-53)

- D. Jesus' first recorded message was given in Nazareth; Jesus declared that the Spirit was on Him (Lk. 4:16-21; cf. Isa. 61:1-2). The favorable year of the Lord referred to the year of Jubilee (Lev. 25:8).

예수님의 최초의 기록된 설교는 나사렛에서였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자신 위에 임하셨음을 선포했다 (눅 4:16-21; 비교. 사 61:1-2).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한다 (레 25:8).

¹⁶ *He came to Nazareth...as His custom was, He went into the synagogue on the Sabbath day... ¹⁷ And He was handed the book of the prophet Isaiah. And when He had opened the book, He found the place where it was written: ¹⁸ "The Spirit of the Lord is up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heal the brokenhearted, to proclaim liberty to the captives... ¹⁹ To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²⁰ Then He closed the book...And the eyes of all who were in the synagogue were fixed on Him. ²¹ And He began to say to them, "Today this Scripture is fulfilled in your hearing..." (Lk. 4:16-21)*

¹⁶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¹⁷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¹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 ¹⁹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²⁰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²¹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눅 4:16-21)

1. Jesus read Isaiah 61:1-2a about the ministry of Messiah emphasizing the power of the Spirit and focused on the good news. Jesus did not read "and the day of vengeance of our God" in Isaiah 61:2b. This is a reference to the day of the Lord or Great Tribulation judgments.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이사야 61:1-2a 절을 읽으시며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 강조하시며 복음에 초점을 맞추셨다. 예수님은 이사야 61:2b 절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읽지 않으셨다. 이 부분은 여호와의 날, 혹은 대 환란의 심판을 언급하는 것이다.

2. The present day—the "today" (4:21) is the promised time of salvation or favor (2 Cor 6:2).

오늘날, 혹은 "오늘"(4:21)은 약속된 구원, 또는 은혜의 때를 말한다 (고후 6:2).

- E. Jesus was rejected in Nazareth (Lk. 4:22-30)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셨다 (눅 4:22-30).

²²So all...marveled at the gracious words... ²³He said to them, "You will surely say this proverb to Me, 'Physician, heal yourself! Whatever we have heard done in Capernaum [Jn. 4:46-54], do also here in Your country.'" ²⁴Then He said, "Assuredly, I say to you, no prophet is accepted in his own country." ²⁵But I tell you truly, many widows were in Israel in the days of Elijah, when the heaven was shut up three years and six months, and there was a great famine... ²⁶but to none of them was Elijah sent except to Zarephath, in the region of Sidon, to a woman who was a widow. ²⁷And many lepers were in Israel in the time of Elisha the prophet, and none of them was cleansed except Naaman the Syrian." ²⁸So all those in the synagogue...were filled with wrath, ²⁹and rose up and thrust Him out of the city; and they led Him to the brow of the hill...that they might throw Him down the cliff. ³⁰Then passing through the midst of them, He went His way. (Lk. 4:22-30)

²² 그들이 다 ...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 ²³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요 4:46-54]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²⁴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²⁵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며 ²⁶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²⁷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며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²⁸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²⁹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³⁰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눅 4:22-30)

1. Jesus found favor with them as long as He only spoke positive words (4:22). His claim to be anointed by God did not offend them since they had heard of His miracles (4:23). But quickly they rejected Him (4:28) when He spoke as a prophet—revealing the condition of their heart.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호의를 얻을 때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할 때뿐이었다 (4:22). 그들은 그분의 기적에 대해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시는 것이 걸림이 되지 않았다 (4:23). 그러나 그분이 선지자로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시며 말씀하실 때 그들은 곧바로 그분을 배척했다 (4:28).

2. **Do also here:** Jesus refuted the mistaken idea that Nazareth had a special claim on Him since He was raised there. They probably felt they should see special miracles.

여기서도 행하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으니 이곳에서도 뭔가 특별한 일을 하셔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대해 반박하셨다. 그들은 아마도 특별한 기적들을 봐야만 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3. Jesus used two examples from Scripture to show how the God of Israel crossed all barriers to aid foreigners who believed, while rejecting Israel who did not believe. Gentiles, like the Phoenician widow and the Syrian leper, who believed were more receptive than unbelieving Nazareth (1 Kgs. 17:12-24; 19:10, 14; 2 Kgs. 5:1-14).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이방인들을 돕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셨는지, 반면에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돕지 않으셨는지의 두 가지 예를 말씀을 통해 들으셨다. 이방인이었던 페니키안 사람 과부와 수리아(아람)의 문둥병자는 믿었고, 믿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들보다 더 수용적이었다 (왕상 17:12-24; 19:10, 14; 왕하 5:1-14).

4. Proverb: "Physician, heal your own limp!" or "If you can fix others, please first fix yourself."

격언: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혹은 “다른 이를 고칠 수 있으면, 너 자신을 먼저 고치라.”

- F. Jesus settled in Capernaum instead of Nazareth or Jerusalem (Lk. 4:31; cf. Mt. 4:13-17; Mk. 1:14). Capernaum was 20 miles from Nazareth. The cycle of initial excitement began again in Capernaum as the people were astonished at His words later rejected Him as in Nazareth (Mt. 11:23; Lk. 4:22). Nazareth was about 1,200 feet above sea level; Capernaum was about 700 feet below sea level.

예수님은 나사렛이나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을 본거지로 삼으셨다 (눅 4:31; 비교. 마 4:13-17; 막 1:14).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20 마일 (32km) 떨어져 있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고, 여기서는 나사렛 사람들이 처음에 흥분하다가 나중에 배척하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마 11:23; 눅 4:22). 나사렛은 해발 약 1200 피트(360m)에 위치해 있었고, 가버나움은 해수면보다 낮은 약 700 피트(200m)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³¹*Then He went down to Capernaum, a city of Galilee, and was teaching them on the Sabbaths. ³²And they were astonished at His teaching, for His word was with authority. (Lk. 4:31-32)*

³¹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³²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눅 4:31-32)

- G. Jesus' first call of the four fishermen—Peter, Andrew, James, and John by the Sea of Galilee in Capernaum (Mk. 1:16-20; cf. Mt. 4:18-22). Notice the instant response of these four disciples. Jesus' disciples did not regularly travel with Him in ministry until around the autumn of AD 27.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갈릴리 해변에서 네 명의 어부를 첫 번째로 부르심 -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막 1:16-20; 비교. 마 4:18-22). 이 네 명의 제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주목하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AD 27 년 가을이 되기 전에는 그분의 사역에 정기적으로 함께 다니지 않았다.

¹⁶*And as He walked by the Sea of Galilee [Capernaum], He saw Simon and Andrew his brother casting a net into the sea... ¹⁷Jesus said to them, "Follow Me, and I will make you become fishers of men." ¹⁸They immediatel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¹⁹When He had gone a little farther from there, He saw James...and John his brother, who also were in the boat mending their nets... ²⁰He called them, and they left their father Zebedee...with the hired servants, and went after Him. (Mk. 1:16-20)*

¹⁶ 갈릴리 해변[가버나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¹⁷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¹⁸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¹⁹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²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막 1:16-20)

- H. Jesus taught in the synagogue and healed a demoniac in Capernaum (Mk. 1:21-28; Lk. 4:31-37). Jesus rebuked demons and then silenced them. He did not allow His Messiahship to be proclaimed prematurely and not by demons so that the leaders could not claim that demons promoted Jesus.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며 귀신들린 자를 치유하셨다 (막 1:21-28; 눅 4:31-37).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꾸짖은 후, 그들을 잠잠케 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메시아이심에 대해 때 이르게 악한 영들에 의해 선포되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으며, 이는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악한 영들의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²¹*Then they went into Capernaum...on the Sabbath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taught... ²³Now there was a man in their synagogue with an unclean spirit. And he cried out, ²⁴saying, "Let us alone! What*

have we to do with You, Jesus of Nazareth? Did You come to destroy us? I know who You are—the Holy One of God!”²⁵ But Jesus rebuked him, saying, “Be quiet, and come out of him!”²⁶ And when the unclean spirit had convulsed him and cried out with a loud voice, he came out of him.²⁷ Then they were all amazed...saying, “What is this? What new doctrine is this? For with authority He commands even the unclean spirits, and they obey Him.” (Mk. 1:21-27)

²¹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²³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²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²⁵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²⁶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²⁷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막 1:21-27)

³¹ Then He went down to Capernaum...³³ there was a man who had a spirit of an unclean demon ...³⁵ And when the demon had thrown him...it came out of him and did not hurt him...³⁷ And the report about Him went out into every place in the surrounding region. (Lk. 4:31-37)

³¹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³³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³⁵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³⁷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눅 4:31-37)

- I. Jesus healed Peter's mother-in-law in Capernaum (Lk. 4:38-39; cf. Mt. 8:14-15; Mk. 1:29-31).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눅 4:38-39; 비교. 마 8:14-15; 막 1:29-31).

³⁸ Now He arose from the synagogue and entered Simon's house. But Simon's wife's mother was sick with a high fever, and they made request of Him concerning her. ³⁹ So He stood over her and rebuked the fever, and it left her. And immediately she arose and served them. (Lk. 4:38-39)

³⁸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³⁹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눅 4:38-39)

- J. Jesus healed many as whole town gathered at the door (Lk. 4:40-41; cf. Mt. 8:16-17; Mk. 1:32-34). Mark added that the “whole city gathered together at the door” (Mk. 1:33).

예수님은 온 마을이 문 앞에 모일 때 많은 이들을 고치셨다 (눅 4:40-41; 비교. 마 8:16-17; 막 1:32-34). 마가복음은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막 1:33).

⁴⁰ When the sun was setting, all those who had any that were sick with various diseases brought them to Him; and He laid His hands on every one of them and healed them. ⁴¹ And demons also came out of many, crying out and saying,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God!” And He, rebuking them, did not allow them to speak, for they knew that He was the Christ. (Lk. 4:40-41)

⁴⁰ 해 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⁴¹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앎이러라 (눅 4:40-41)

- K. Jesus engaged in early morning prayer often (Mk. 1:35-38; Lk. 4:42-43). Jesus' first preaching tour in Galilee probably lasted about 4 months in early AD 28 (Mt. 4:23-24; Mk. 1:39; Lk. 4:42-44).

예수님은 자주 새벽에 기도하셨다 (막 1:35-38; 눅 4:42-43). 예수님이 AD 28 년 초기에 처음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며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아마 4 달 정도 계속됐을 것이다 (마 4:23-24; 막 1:39; 눅 4:42-44).

⁴²*Now when it was day, He departed and went into a deserted place. And the crowd sought Him and came to Him, and tried to keep Him from leaving them... (Lk. 4:42)*

⁴²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눅 4:42)

³⁵*Now in the morning, having risen a long while before daylight, He went out and departed to a solitary place; and there He prayed. ³⁶And Simon and those who were with Him searched for Him. ³⁷When they found Him, they said to Him, "Everyone is looking for You." ³⁸But He said to them, "Let us go into the next towns, that I may preach there also, because for this purpose I have come forth." ³⁹And He was preaching in their synagogues throughout all Galilee... (Mk. 1:35-39)*

³⁵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³⁶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³⁷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³⁸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³⁹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막 1:35-39)

²³*And Jesus went about all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each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aling all kinds of sickness ... ²⁴Then His fame went throughout all Syria; and they brought to Him all sick people who were afflicted with various diseases and torments, and those who were demon-possessed, epileptics, and paralytics; and He healed them. (Mt. 4:23-24)*

²³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²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 4:23-24)

II. JESUS' SECOND CALL OF THE FOUR FISHERMEN

예수님이 두 번째로 네 명의 어부를 부르심

- A. Jesus' second call of the four fishermen—Peter, Andrew, James, and John (Lk. 5:1-11). From this time on they permanently travelled with Jesus. At Jesus' first call to these four fishermen, Simon and Andrew were casting a net into the sea, and James and John were mending nets (Mk. 1:16-20).

예수님이 두 번째로 네 명의 어부를 부르심 -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눅 5:1-11). 이 때부터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다니게 된다. 예수님이 이 네 명의 어부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는, 시몬과 안드레는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고치고 있었다 (막 1:16-20).

¹*...He stood by the Lake of Gennesaret, ²and saw two boats standing by the lake; but the fishermen...were washing their nets. ³...He sat down and taught the multitudes from the boat... ⁴He said to Simon, "Launch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⁵But Simon... said to Him, "Master, we have toiled all night and caught nothing; nevertheless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 ⁶...they caught a great number of fish, and their net was breaking. ⁷So they signaled to their partners in the other boat to...help them... ⁸When Simon Peter saw it, he fell down at Jesus' knees, saying, "Depart from me, for I am a sinful man, O Lord!"... ¹⁰James and John...were partners with Simon. Jesus said to Simon, "Do not be afraid. From now on you will catch men." ¹¹...they forsook all and followed Him. (Lk. 5:1-11)*

¹ ...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²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찢는지라 ³ ...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⁵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⁶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⁷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 ⁸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 ¹⁰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¹¹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눅 5:1-11)

1. The Lake of Gennesaret is the Sea of Galilee. Gennesaret was a district at the northwestern end of the Sea of Galilee. The district's name is associated to it, thus the Lake of Gennesaret.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한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이름을 따서 여기서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다.

2. Peter's heart is seen (5:8). Most would have rejoiced to have contact with a miracle worker. They would be thinking of the blessing they would get from Him, but Peter recognized something more than a miracle. He saw God and worshiped in humility.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마음을 볼 수 있다 (5:8).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며, 자신들이 받을 축복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 그 이상을 알아보았다. 그는 하나님을 목격했고, 겸손히 경배했다.

- B. Jesus healed a leper, then many came to that town in Galilee (Lk. 5:12-16; cf. Mt. 8:2-4; Mk. 1:40-45). This is the beginning of hostility with the Pharisees in Galilee (Lk. 5:12-6:11).

예수님은 나병 들린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며,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로 모여들었다 (눅 5:12-16; 비교. 마 8:2-4; 막 1:40-45). 그리고 갈릴리의 바리새인들은 적대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눅 5:12-6:11).

¹² *... behold, a man who was full of leprosy saw Jesus; and he fell on his face and implored Him, saying,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¹³ *Then He... touched him, saying, "I am willing; be cleansed." Immediately the leprosy left him.* ¹⁴ *And He charged him to tell no one, "But go and show yourself to the priest, and make an offering for your cleansing, as a testimony to them, just as Moses commanded."* ¹⁵ *However, the report went around concerning Him all the more; and great multitudes came together to hear, and to be healed by Him of their infirmities.* ¹⁶ *So He Himself often withdrew into the wilderness and prayed. (Lk. 5:12-16)*

¹² ...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¹³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¹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¹⁵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¹⁶ 예수는 물러가사 [NKJV: often, 자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눅 5:12-16)

⁴¹ *Then Jesus, moved with compassion... said to him, "I am willing; be cleansed"...* ⁴³ *He strictly warned him...* ⁴⁴ *"See that you say nothing to anyone;"* ⁴⁵ *However, he went out and began to proclaim it freely... so that Jesus could no longer openly enter the city, but was outside in deserted places; and they came to Him from every direction. (Mk. 1:40-45)*

...⁴¹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⁴³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⁴⁴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⁴⁵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막 1:40-45)

1. Jesus revealed Himself as willing to heal. This settled the issue about healing (Heb. 13:8). In the person of Jesus, the Father clearly revealed His willingness and desire to heal the sick.

예수님은 기꺼이 치유하기를 원하는 분이심을 밝히셨다. 이는 치유와 연관된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히 13:8).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병든 자를 치유하시길 원하심을 명확하게 밝히셨다.

2. The people in Israel wanted a political kingdom, not a spiritual kingdom.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국을 원했지, 영적인 왕국을 원하지 않았다.

3. Leviticus 13-14 described the cleansing procedure described by Moses where the cleansed leper was to show himself to a priest. Jesus sought to respect the authority of the priests.

레위기 13-14 장에는 모세가 설명한 정결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병이 나은 자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하고자 하셨다.

- C. Jesus healed and forgave a paralytic in Capernaum (Lk. 5:17-26; cf. Mt. 9:1-8; Mk. 2:1-12).

예수님께서서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치유하셨다 (눅 5:17-26; 비교. 마 9:1-8; 막 2:1-12).

¹⁷...as He was teaching...the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had come out of every town of Galilee, Judea, and Jerusalem. And the power of the Lord was present to heal them. ¹⁸Then behold, men brought on a bed a man who was paralyzed...¹⁹because of the crowd, they went up on the housetop and let him down with his bed through the tiling...²⁰When He saw their faith, He said to him, "Man, your sins are forgiven you."²¹And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egan to reason, saying, "Who is this who speaks blasphemies? Who can forgive sins but God alone?"²²But...He answered and said to them, "Why are you reasoning in your hearts?²³Which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you," or to say, "Rise up and walk"?²⁴But that you may know that the Son of Man has power on earth to forgive sins"—He said to the man who was paralyzed, "I say to you, arise, take up your bed, and go to your house."²⁵Immediately he rose up before them, took up what he had been lying on, and departed to his own house...²⁶And they were all amazed, and they glorified God and were filled with fear, saying, "We have seen strange things today!" (Lk. 5:17-26)

¹⁷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¹⁸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¹⁹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²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²¹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²²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²³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²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니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²⁵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²⁶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눅 5:17-26)

1. Jesus was often charged with blasphemy (Mk 14:64; Jn 5:18; 10:33, 36).

예수님은 종종 신성 모독을 한다는 말을 들었다 (막 14:64; 요 5:18; 10:33, 36).

2. The religious leaders were right in claiming that only God can forgive sins.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는 말이었다.

3. It is easier to say, "Your sins are forgiven" than "Get up and walk" because the legitimacy of the claim that God forgave someone cannot be disproven, whereas declaring the healing of a paralytic can easily and immediately be verified.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쉬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을 반박할 수 없는 반면, 마비가 된 사람에게 치유를 선포하는 것은 쉽고 즉각적으로 확인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D. Jesus called Matthew also named Levi (Lk. 5:27-28; cf. Mk. 2:14). Matthew tells this story using his name Matthew instead of Levi (Mt. 9:9). Here Jesus manifested His compassion toward sinners.

예수님은 레위라 불리는 마태를 부르셨다 (눅 5:27-28; 비교. 막 2:14). 마태는 이 스토리를 레위라는 이름 대신 마태라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다 (마 9:9). 예수님은 여기서 죄인들을 향한 긍휼을 보이신다.

²⁷After these things He went out and saw a tax collector named Levi, sitting at the tax office. And He said to him, "Follow Me." ²⁸So he left all, rose up, and followed Him. (Lk. 5:27-28)

²⁷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²⁸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눅 5:27-28)

1. Levi was not the chief tax collector, but an agent working at a tax office in Capernaum.

레위는 세리장이 아니라, 가버나움의 세관원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

2. In Matthew 9:9, the tax collector was called Matthew, not Levi, and in all four lists of the twelve apostles Matthew is the name that is used. Jews often had two names (one in Hebrew or Aramaic and the other in Greek or Latin); he was probably called Levi Matthew.

마태복음 9:9 절에서 이 세리는 레위가 아닌 마태로 불리며, 12 사도들의 이름이 나열되는 네 번 모두에서 마태로 불린다. 유대인들은 종종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히브리 또는 아랍어 이름, 그리고 다른 하나는 헬라 혹은 라틴어 이름). 그는 아마도 레위 마태라고 불렸을 것이다.

- E. Levi held a banquet in gratitude to Jesus at his house in Capernaum (Lk. 5:29-32; cf. Mt. 9:10-13; Mk. 2:15-17). We see the joy of Levi and his sinner friends in contrast to the Pharisees and scribes. The religious leaders were against eating with sinners because of the risk of ceremonial defilement.

레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버나움의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 (눅 5:29-32; 비교. 마 9:10-13; 막 2:15-17).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비되는 레위와 그의 죄인 친구들의 기쁨을 볼 수 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의식법상 더러워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과 식사하기를 꺼려했다.

²⁹Then Levi gave Him a great feast in his own house. And there were a great number of tax collectors and others who sat down with them. ³⁰And their scribes and the Pharisees complained ...saying, "Why do You

*eat and drink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³¹ *Jesus answered and said to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³²*I have not come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Lk. 5:29-32)

²⁹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³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³¹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³²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눅 5:29-32)

- F. Matthew added Jesus' exhortation that they go and learn what it means when God says, *“I desire compassion and not sacrifice”* (Hos. 6:6). True spirituality is to result in compassion for people *and* zeal for holiness. When zeal for holiness motivates us to condemn people, then it is not God-like.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호 6:6)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참된 영성은 거룩을 향한 열심을 가지되, 동시에 사람들을 향한 긍휼을 가지는 것이다. 거룩을 향한 열심으로 인해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과는 다르다.

¹²...*He said to them,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a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¹³But go and lear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Mt. 9:12-13)

¹²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¹³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 (마 9:12-13)

1. Test your zeal for holiness by your love for man to see if it is real or “religious” holiness.

당신이 가진 거룩을 향한 열심이 진짜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테스트해보라.

2. The Bible teaches that there are none righteous (Rom 3:10).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 (롬 3:10).

3. Some use this passage to validate hanging out socially in wrong places as a “silent witness.”

어떤 이들은 사회의 옳지 못한 장소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조용한 증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 G. Jesus was asked about fasting by John's disciples (Lk. 5:33-39; cf. Mt. 9:14-17; Mk. 2:18-22). This happened in or around Capernaum. Jesus described the apostles as “friends of the bridegroom” who should not “mourn” as long as the Bridegroom was with them (Mt. 9:14-15). But after Jesus, the Bridegroom, was taken from them at the crucifixion, then they would fast with deep longing to encounter His presence in a greater way as the Bridegroom God—“the Bridegroom fast.”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 (눅 5:33-39; 비교. 마 9:14-17; 막 2:18-22). 이 일은 가버나움에서, 혹은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은 이 사도들을 “신랑의 친구들”로 묘사했으며, 이들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한 “슬퍼하지” 않을 자들이었다 (마 9:14-15).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빼앗길 때, 그들은 신랑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한 깊은 갈망으로 금식하게 될 것이다, “신랑을 향한 금식.”

³³ They said to Him, “Why do the disciples of John fast often and make prayers, and likewise those of the Pharisees, but Yours eat and drink?” ³⁴ And He said to them, “Can you make the friends of the bridegroom fast [mourn] while the bridegroom is with them?” ³⁵ But the days will come when the bridegroom will be taken away from them; then they will fast in those days.” (Lk. 5:33-35)

³³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³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쉬운말 성경: 친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³⁵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눅 5:33-35)

H. Jesus taught about the new order of the kingdom that was being established by His very presence.

예수님은 자신으로 인해 새롭게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셨다.

³⁶ Then He spoke a parable to them: “No one puts a piece from a new garment on an old one; otherwise the new makes a tear, and also the piece that was taken out of the new does not match the old.” ³⁷ And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or else the new wine will burst the wineskins and be spilled, and the wineskins will be ruined. ³⁸ But new wine must be put into new wineskins, and both are preserved.” (Lk. 5:36-38)

³⁶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³⁷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³⁸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눅 5:36-38)

²¹ “No one sews a piece of unshrunk cloth on an old garment; or else the new piece pulls away from the old, and the tear is made worse.” (Mk. 2:21)

²¹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한글 KJV: 깎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막 2:21)

1. Wineskins were containers made from the skins of animals. The expansion caused by the fermenting of new wine bursts old wineskins because they have already been stretched as far as is possible. Thus, it was not possible to mix the old legalistic structures of Judaism with the new experience and activity of the Spirit associated with having a relationship with Jesus.

포도주 부대는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용기였다.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팽창하기 때문에 낡은 포도주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는데, 이는 낡은 포도주 부대가 이미 늘어날 만큼 늘어날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된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구조를 예수님과 그의 관계를 통해 경험되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섞는 것은 불가능했다.

2. Jesus taught that one cannot put a “new patch” on an old garment or system and that one *must* put new wine in new wineskins. Seeking to add the work of the Spirit to the older order of Judaism would ruin the new-wineskin order, and it would not preserve the old order either.

예수님은 “새 조각”을 낡은 옷이나 시스템에 붙일 수 없음을 가르치셨으며, 이는 새 포도주를 새 포도주 부대에 넣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오래된 유대교 시스템에 더해버리면 새 포도주 부대의 질서가 망가지며, 오래된 시스템 또한 보존할 수 없게 된다.

3. Jesus was saying one cannot bring a new move of God into an old setting unless that old setting is willing to set aside some of the old ideas, values, and practices. Jesus did not come to put a patch on Judaism, but to establish the new covenant order with His people.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하심을 오래된 구조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오래된 시스템이 낡은 생각이나 가치, 해오던 일들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 예수님은 유대교에 새 조각을 더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 질서를 세우기 위해 오신 것이었다.